

큰빛은혜교회 가정에배시

2024. 4. 10. WED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다 같이

각 가정마다 악기를 가지고 아래 찬송가 혹은 원하시는 찬양을
선곡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2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3 주 떠나 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4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후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대표 기도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기도자

성경 봉독

요한복음 15:9-12

다 같이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2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기쁨은 인간의 정신과 마음에 보약과 같은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기쁨은 인간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를 믿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은 육신의 쾌락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신앙의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어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원망과 불평이 생기며 그로 인해 신앙이 점점 쇠약해집니다. 그러나 마음의 기쁨은 입술의 찬양과 감사를 넘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곧 사랑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사랑을 행하는 자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도 계명들 중 사랑의 계명이 가장 크고 제일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계명은 곧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는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온전히 행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나면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 쾌락을 통해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 쾌락을 통해 기쁨을 누린다 해도 그것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 기쁨은 솟아나는 기쁨이 되며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둘째, 항상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4:4)" 고 했고, 야고보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약1:2)" 고 권면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며 그것은 주 안에서의 기쁨임을 일깨워 줍니다. 사실 성도란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그러한 주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기쁨이 끝없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은혜를 입고 사는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와 삶의 모습이 바로 감사와 기쁨인 것입니다.

마무리 기도

다 같이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기쁨을 누리려 애쓰는 삶이 아닌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언제나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여 주가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기도 문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